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 이동

이상림*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전형적인 연령패턴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변화는 생애주기와 지역애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왔다. 많은 인구이동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갖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한 거주지역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인구이동의 다양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NLSY79)를 사용하여, 인구이동을 최초이동, 계속이동 및 귀환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생애주기 및 지역애착 등을 반영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인구이동이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연령패턴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초이동은 이동률이 성인초기 연령대의 매우 높은 수준에서 급감하여 중년에 이르러 일반적 이동을 수준으로 나타났고, 계속이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선형으로 꾸준히 감소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귀환이동은 이동률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패턴의 다양성을 설명을 위해 이 연구는 인구이동에서의 보수성 증가라는 심리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핵심단어: 연령효과, 최초이동, 계속이동, 귀환이동, 지역애착

I. 머리말

인구학에서 연령의 영향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사회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망, 출산 그리고 인구이동 등 인구학적 행위들의 발생은 연령에 따라 보편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학적 행위에 대한 연령의 영향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교육, 노동시장 참여, 결혼, 육아 그리고 은퇴 등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문화적 영향을 반영하기도 한다. 특히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후자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인구이동률의 연령패턴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동가능성이 높은 유년기에는 높은 이동률을 보이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후,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BK21 노인보건정책연구사업팀 박사후 연구원 | dearlim@gmail.com

노동시장 및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십대 후반 이십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다가 결혼 및 출산 육아 시기에 이르러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 인구이동률의 수준은 경제여건 및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높낮이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연령에 따른 변화 패턴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이동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덜 우호적인 환경을 피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주동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별 이동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생애과정에 따라 환경에 반응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더불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구이동은 사망이나 출생 등 다른 인구학적 행동들과는 달리 전 생애를 걸쳐 반복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거주지의 변화 없이 자신이 출생한 곳에서 평생 동안 머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며, 이동 이후에도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계속하거나 혹은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곳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따라서 이동을 생애 ‘최초 이동’(primary migration)과 ‘반복이동’(repeat mi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반복되는 이동이라 할지라도 목적지(destination)에 따라 새로운 곳으로의 ‘계속 이동’(onward migration)과 ‘귀환이동’(return mig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인구이동의 형태에 따라 이동의 내용과 이주자(migrant)의 특성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계속이동의 경우 더 나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귀환이동의 경우 지난 이동의 실패(failed migration)에 따라 이를 만회하려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특성은 이주자들이 갖는 성격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계속이동의 이주자들의 경우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학력자, 백인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대로 귀환이동의 이주자들은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유색인종이, 학력에서는 저학력자들의 경우 귀환이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주자들의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들의 차이는 인구이동의 형태에 따라 연령별 패턴도 다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동의 실패 위험성, 새로운 지역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과 대응 방식 등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국내 인구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인구이동의 형태에 따라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구이동력 정보를 축적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 인구이동 형태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연령패턴을 비교하며, 더불어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함께 보여주고자 한다. 인구이동에 대한 연령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사망이나 출산의 연령분포와는 달리 인구이동에서는 생물학적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령 은퇴 연령에서는 육체적 건강과 관련되어 이동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 연령대에서의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차이는 비생물학적 요인들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구이동의 연령패턴은 생애주기 요인이나 지역애착(place attachment)의 영향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unmeasured) 요인들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회적 또는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작업은 인구이동뿐만이 아닌 인구학 혹은 사회현상 전반을 고찰하는 더 깊은 이론적 틀과 사회과학적 이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기존의 일반적인 인구이동에 대한 연령효과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형태를 나누어 다양한 형태의 인구이동에서 나타나는 연령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타나는 이동형태 간의 차별성이나 공통점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 설명들이 주목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더욱 정교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패널 데이터 자료의 장점은 인구이동 연구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해준다. 인구이동의 형태에 따라 인구이동의 성격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구학 연구 모두에서 인구이동형태를 구분한 인구이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다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인구이동이 갖는 반복성의 특성 상 이주자의 과거 이동력(移動歷)을 포함하는 자료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인구이동 자료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비)이주자들의 과거 이동력을 고려하는 이 연구의 접근은 연구주제뿐만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인구이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인구이동에 대한 일반적 접근

기존의 경제학적 시각은 인구이동을 이동에 따른 비용과 기대되는 이익의 차이로 설명하였는데,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주류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이동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거주지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클 경우 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시 인적자원이론(human capital perspectives)으로 발전하는데, 인적자원이론은 단순한 비용과 이익에 대한 계산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을 적용하여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까지 포함하는 합리적 선택으로 인구이동을 바라본다. 여기에서 투자란 경제적 비용, 시간, 기회비용 및 개인적 노력을 포함하며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준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이론에서 교육은 현대 사회의 인적자원의 투자 및 이동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단순 경제학적 접근과 인적자원이론 모두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인구이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각은 개인수준의 합리적 선택으로 인구이동을 환원시켰다는 점과 똑같이 불리한 환경(예를 들어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곳에 계속 머물기도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Lee(1966)의 Push and Pull 모델은 기존의 단순 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 모델에서는 현재 거주지 지역(origin)과 목적지(destination)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이다. 현재 거주지의 인구 배출요인(pushing factor)과 다른 지역의 인구 흡인요인(pulling factor)이 개인의 특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인구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며, 더불어 이주거리, 이주비용 그리고 사회문화적 법률적 장벽 등 인구이동의 장애 요인들도 함께 고려한다.

Push and Pull 모델은 인구이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적 수준의 논의를 넘어 지역적 특성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 외에도, 인구이동의 선택성(selectivity)을 염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동이나 계속 머물고자 하는 결정이 단순히 지역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구이동에 대한 결정이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이동여부에 대한 차이점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주하고자 하는 데도 개인들의 특성에 따라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관적으로 그 배출 및 흡인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여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이동의 목적지의 선택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이를 이 연구 주제에 적용해보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가,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곳으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목적지의 선택 역시 결정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Lee의 모델은 인구이동의 연령패턴이 이동형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을 가정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민속학적 시각으로 인구이동 현상에 접근하는 일련의 학자들(예를 들어, Massey, 1996; McHugh, 2000; Smith, 2002)은 또 다른 시각에서 기존의 인구이동 이론들에 대한 중요한 비판점을 던져준다. 이들에 따르면 인구이동 연구에서 주류적 입장들은 대부분 경제학적 접근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구이동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동에 대한 결정은 분리된 시간 속에서 각각 독립된 계산에 의한 결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민속학적 비판에서 인구이동은 개인과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쌓여진 정치적 문화적으로 풍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다. 인구이동은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지역의 의미들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개인들의 주관적 지역에 대한 의미들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의 정착 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Uhlenberg, 1973).

이러한 인구이동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제안은 이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넘어선 감정적 주관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자신이 머물렀던 지역에 대한 의미가 이동 후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련의 이동 혹은 인구이동에 대한 결정들은 서로 동떨어져있는 독립적 사건들이 아니라 시간을 걸쳐 연결되는 사건임을 주장한다는 데 그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인구이동과 연령

연령에 따른 인구 이동률은 연령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그 연령별 추이에 있어서 매우 정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Thomas, 1938; Long, 1973; Jones, 1990; Détang-Dessendre et. al., 2002; White and Lindstrom, 2006).

일반적인 연령과 이동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생애초기 다시 말해 영유아기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동 추세를 보이나, 십대 중후반까지 그 추세는 계속적으로 빠르게 떨어진다. 성인기 이전의 이동은 부모의 연령적 특성으로 설명된다.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에 이르는 초기 성인기에 이르는 시점에서 이동률은 급증하다가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에 이르는 성인기에서 다시 급감하기 시작하며, 이후 감소세는 완화되기는 하지만 노인연령대에까지 꾸준하게 이동률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인구이동률은 은퇴시기에 약간의 파동을 보이기는 하지만 노인 연령에서는 생애에서 가장 낮은 이동률을 보여준다(Jones, 1990; Pandit, 1997).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은 그 높낮이의 강도에서는 시간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연령추세의 추이가 그리는 형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Rogers, 1979; Pandit, 1997). 이러한 인구이동, 특히 성인기의 연령패턴은 생애과정과 지역애착에 의해 설명되어진다(Jones, 1990; Pandit, 1997). 생애과정이란 학업, 취업, 직장에서의 직위, 직장 경력, 혼인, 출산, 육아 및 자녀들의 성장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지역애착은 정서적인 요인과 비정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정서적인 요인에는 거주지역의 익숙함이나 지역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의 인적 관계를 포함한다. 또한 비정서적인 요인으로는 직업과 관련된 관계망, 고객 및 거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서의 평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애착과 생애과정과 관련된 변인들은 특히 이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ndefur and Scott, 1981; Lee and Roseman, 1999). 특히 대부분 생애과정 상의 변화들이 초중기 성인기에 일어난다는 점과 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애착도를 보인다는 점은 왜 초중기 성인기에 인구이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다.

연령과 이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Sandefur와 Scott의 연구(1981)는 생애주기와 관련된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인구이동에 미치는 연령 효과가 상당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변수로 혼인상태와 가족의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직업 경력과 관련하여 임금 수준, 평판, 고용상태 등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연령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

1)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연령 가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회귀계수들의 표준오차를 분석하여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듯이 공분산을 이용한 분석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p.367). 더불어 기준변수와의

한편 미국의 1960년과 1970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여 귀환이동의 연령패턴을 분석한 연구들(Lee, 1974; Miller, 1977)에서는 이십대 중반 이후에서는 귀환이동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귀환이동은 자신이 태어난 주(state)로 되돌아가는 이동만으로 정의되었는데, 출생지역, 5년 전의 거주지 그리고 현재 거주지의 변화만을 고려하는 센서스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측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DaVanzo and Morrison, 1981).

3. 인구이동의 다양한 형태들: 반복 이동과 생애 최초이동

일반적으로 인구이동 연구에서 인구이동은 단순히 과거의 거주 지역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정착하는 거주지역의 변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인구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동의 목적지에 따라 인구이동을 더욱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은 거주지의 변화 없이 자신이 출생한 곳에서 평생 동안 머물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뿌리내려 머물기도 하고, 혹은 그 이후에도 다른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거나 혹은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거주지로 되돌아가기도 한다(김두섭·권태환, 2002: 179-180)²⁾.

Goldstein(1954; 1964)은 이동을 반복하는 이동력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Norristown 인구이동 기록을 분석한 그의 논문(1954)에서는 전체 인구이동의 숫자와 이주자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인구이동의 많은 부분이 이동성이 높은 특정 인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동성이 높은 인구들과 그렇지 않은 인구들 사이에는 사회경제적인 특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차이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가변수들의 영향력의 증감이 연령에 따른 이동률과 매우 일치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연령의 영향력이 일정 연령 이후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모델에서는 연령간의 차이를 밝혀내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Hogan and Kitagawa(1985: p. 842)를 참고할 수 있다.

- 2) 김두섭과 권태환(2002)은 단계이동을 설명하였는데, 단계이동은 귀환이동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을 계속한다는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계속이동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단계이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단계적 이동이나, 혹은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민족공동체(ethnic community)를 벗어나는 단계적 과정을 나타낸다. 이 연구의 연구관심이 이동의 목적지가 갖는 지역 특성의 정도(degree)에 대한 일련의 이동들의 방향성이 아니므로 단계이동과 구별하고자 계속이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초기적 가설은 이후 비교적 장기간 동안 모아진 패널 데이터를 통하여 인구가동력을 살펴본 DaVanzo와 Morrison의 논문(1981)에서 확인된다. 이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과거에 머물렀던 지역으로 귀환하는 이동자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이주자나 이동 없이 계속 머무르는 사람들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고 또한 실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귀환이동자들의 차별성은 이들의 최근 이동이 실패한 이동(failed migration)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최근의 귀환이동에 대한 연구들(Newbold, 2001; Newbold and Bell, 2001; Hunt, 2004)은 귀환이동자들 중 일정부분은 오히려 학력이나 기술 수준이 더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연령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일부 귀환이동자들의 이동은 계획된 이동(pre-planned migration)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귀환이동 바로 이전의 이동은 자신들의 경력을 높이고자 하는 투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귀환이동자들을 다른 집단, 다시 말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이동자들이나 거주지의 변화 없이 머무르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실패한 이동의 특성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한 Wilson et. al.(2009)의 연구는 귀환이동과 관련하여 떠나기 전 거주지(출발지)에서의 거주기간이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저자들은 지역 애착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기존의 지역애착이 현거주지에서만 사용된 것에 비해 그 영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분석 단위로 이동(migration)을 사용하였는데,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귀환이동 확률이 백인들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인종에 따른 귀환이동의 차이를 인종 공동체(ethnic community)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 과거 거주지의 지역애착과 매우 유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생애 최초이동에 대한 연구는 반복이동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당히 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동의 개인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부족한 탓에, 최초이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하거나(Shyrock, 1964; Eldridge, 1965; Miller, 1977; Liaw, 1990; Lee and Roseman, 1999), 한정된 기간의 패널 데이터의 조사기간 중 최초이동을 대안적으로 최초이동으로 규정하여 분석하였다(Shyrock, 1964; Shyrock and Larmon,

1965; DaVanzo and Morrison, 1981; Howell and Frese, 1983; Bohara and Krieg, 1996). 이러한 방법들은 반복이동을 최초이동으로 정의하면서 최초이동을 실제보다 과대 측정할 가능성이 높다³⁾.

인구센서스 자료를 사용한 몇몇 연구들(Eldridge, 1965; Lee, 1974; Miller, 1977; Newbold, 2001; Newbold and Bell, 2001)은 미국 내 전체 인구이동 중 절반 가까이가 최초이동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생애 최초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측정된 것에 비해 훨씬 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이동의 사례는 반복된 이동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yrock and Larmon, 1965; Lee, 1974; Miller, 1977; Liaw, 1990; Newbold, 1997).

더불어 최초 이주자는 반복된 이주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최초이동이 영유아기 부모들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그 이후라 하더라도 고등교육을 시작하거나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애착의 관점에도 한곳에 오래 머물수록 이동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정 연령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최초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결과는 최초이동의 위험성(risk)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는 과거 최초이동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최초이동의 연령별 이동률이 낮아지는지를 확인해주지는 못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이동은 그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이주형태 별 이주자의 특성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미치는 영향 특히 각 인구이동 형태별 연령패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3) 이러한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최초이동(primary migration)을 native migration (Liaw, 1990)이나 initial migration (Bohara and Krieg, 1996)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방법론적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명칭일 뿐, (생애)최초이동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들 이동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Ⅲ. 분석 자료 및 방법론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론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인구이동 측정과 관련한 인구이동 데이터의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인구이동은 그 형태에 따라 차별적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들이 이를 무시한 채 전체적 인구이동에만 주목하여 왔다. 이는 인구이동력(移動歷)을 축적한 데이터의 부재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 실증적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구이동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한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1. 인구이동 연구자료

1) 측정시점의 문제

일반적으로 인구이동은 거주지역의 변동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인구이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시점의 개인과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인구이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센서스 자료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거주지와 5년 전의 거주지, 미국의 경우에는 출생지와 5년 전 거주지를 사용하는데, 이런 자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동자의 경우 이주시점의 개인적 특성(학력, 소득, 혼인여부, 자녀의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센서스를 이용한 인구이동, 정확하게는 인구이동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거나 추정이 가능한 성별, 인종 그리고 연령집단 등으로 변수가 한정되고 있다. 측정 시점과 관련된 다른 문제점은 센서스 자료는 지난 5년간의 이동여부만을 확인해 줄 수 있을 뿐, 정확한 이동시점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센서스 자료는 인구이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 상황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학력수준(졸업)이나 결혼 상태의 변화로 인한 이동을 알 수 없다.

2) 인구이동의 반복성과 이동력(移動歷)과 관련된 측정의 문제

인구이동은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센서스 자료나 혹은 상당 시간의 간격을 두고 측정된 횡단 자료로 인구이동을 측정하게 될 경우 과소추정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측정으로

는 두 시점 사이에 있어났던 다수의 이동 사건들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랜 간격을 두고 측정된 인구이동에 대한 정보는 인구이동의 전체 총량을 실제보다 작게 측정할 위험이 있다.

인구이동의 측정 상의 문제는 전체 이동사례들에 대한 과소 측정뿐만이 아니라 인구이동의 구별된 특성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이동 데이터가 개인이 행한 인구이동 전체 중 일부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한계를 초래할 수 있는데, 우선 인구이동의 형태와 관련하여 생애 첫 이동을 구별하여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인구이동 자료들에서는 생애 첫 이동은 고등 교육 진학, 노동시장 참여 혹은 혼인 및 출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인구학적 현상이나 다른 형태의 이동들과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다른 형태의 인구이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첫 이동에 대한 본격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특정 인구이동 행위가 다른 형태의 이동으로 잘못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귀환이동의 측정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과거 이동한 지역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과거 거주지로 되돌아가는 귀환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측정 기간 범위 이전에 행해진 개인의 이동력이 무시되어,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 즉, 계속이동으로 잘못 정의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인구이동 종류 측정에 있어 양적 오류, 다시 말해 사례 수나 이동력 수준에 대한 측정 오류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종류의 인구이동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동자의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도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자료의 양적인 측정오류는 인구이동 형태의 특징 및 이동자들의 특성 파악에 대한 질적인 오류로 이어진다(DaVanzo and Morrison, 1981; DaVanzo, 1983; Newbold, 2001; Newbold and Bell, 2001; Hunt, 2004).

이와 같이 인구이동 연구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자료상의 방법론적 문제들로 인하여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한계를 갖게 되며, 이러한 한계는 실제로 인구이동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확장을 방해하여 왔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구이동에 관한 인구학 연구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인구이동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완성도 높은 인구이동 자료란 이동 당시의 개인 및 지역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간격(1~2년)을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측정되어 과거 인구이동에 대한 정보가 누적된 종단자료를 의미한다(Long and Boertlein, 1990; Xu-Doeve, 2007).

2. 분석 자료 및 방법론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지난 1979년부터 짧은 간격(매년: 1979~1996, 2년: 1998~현재)으로 종단적으로 수집된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NLSY79)의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1979년 당시 전국의 14~22세 9,763명⁴⁾을 대상으로 수집된 이 패널 데이터는 노동력에 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개인과 가족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NLSY79는 매우 질 높은 인구이동 정보를 이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NLSY79가 제공하는 geo-code 데이터는 각 조사 시점의 거주지 및 출생지와 14세 당시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카운티(county, FIPS code) 단위로 제공한다. 더불어 첫 조사에서 당시 거주지로 이주한 시기를 물었다. NLSY79 자료는 비록 특정 코호트에 집중하였으며,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긴 시간동안 짧은 간격으로 거주지역 정보를 축적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이동 자료가 갖는 측정 상의 오류를 상당부분 해소한 완결성이 매우 높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횡단자료들은 각 조사 간격 동안 이동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인 기간(person period)의 형태로 전환한다(Schoumaker and Hayford, 2004). 그러므로 연구에 포함되는 개인들의 각 간격 동안 이동을 할 수 있는 위험(risk)들이 누적되며, 이러한 각 간격의 위험은 개별 사례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관심은 개인의 자발적 이동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가족에 의한 이동 사례를 배제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성인연령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총 131,226개의 개인 기간이 분석에 포함된다.

2) 변수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인구이동이며, 인구이동은 두 조사 시점 사이의 거주지(county)의 변화로 측정된다. 그리고 결측값의 경우 다음 조사에서의 거주지

4) 원래 NLSY79는 전국을 대표하는 6,111명과 흑인, 히스패닉, 빈곤층 백인 그리고 군인 소규모 집단에 대한 6,575명의 추가표집(supplementary subsample)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재정지원 중단의 이유로 빈곤층 백인과 군인 추가표집군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는 이들 빈곤층 백인과 군인 표집군을 제외하였다.

를 결측된 시점의 거주지로 간주하기로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의 목적은 인구이동 형태별로 구분하여 그 연령 추이를 알아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구이동은 과거 이동경험 유무와 이동의 목적지(destination)에 따라 생애 최초이동과 반복이동으로 구분되며, 반복이동의 경우, 다시 계속 이동과 귀환이동으로 나뉘지게 된다. 최초이동의 위험(risk)에 놓인 사람은 과거 이동 경험이 없는 다시 말해 거주기간과 연령이 동일한 경우이며, 반복이동의 경우는 과거 거주지의 변화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들이다. 반복이동은 다시 계속이동과 귀환이동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 계속이동은 예전에 거주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곳으로의 이동으로 정의되며, 귀환이동은 한번이라도 거주한 적이 있던 곳으로의 이동으로 정의된다⁵⁾.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역 지표(거주지역의 변화, 과거 거주 여부)는 모두 카운티 단위로 파악된다.

최초이동의 위험과 반복이동의 위험은 서로 공유되지 않는 배타적 성격이므로, 각각의 위험군에 속한 사례들은 구별된 분석모델에 속하게 한다. 각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가 갖는 변수값은 최초이동의 경우 최초이동과 비이동(staying), 그리고 반복이동의 경우 계속이동, 귀환이동 그리고 비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반복이동의 경우 계속이동과 귀환이동이 다른 연령패턴, 즉 다른 로그 함수식(예: 일차함수, 이차 혹은 삼차 함수)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반복이동에 대한 분석에도 다범주(multinomial) 분석이 아닌 비이동과 각각의 이동에 대한 이항(binomial)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이 분석에서는 각 이동형태의 연령추이를 살펴보고자 비이동과 대비되는 세 개의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분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는 샘플의 크기는 각 모델에 따라 다르게 된다. 최초이동에 대한 분석 모델은 총 35,170개의 개인기간을 포함하며, 계속이동의 경우에는 90,651개, 그리고 귀환이동의 경우에는 88,009개의 개인기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분석되는 연령의 영향력을 보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 연령추이는 확률(probability)로 전환되어 표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령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의 인구이동 형태에 대하여 다수의 함수식을 상정하여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모델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델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 후 모델의 적합도가 가장

5) 미국의 센서스를 사용하여 이동의 형태를 구분한 연구들에서는 귀환이동을 출생지역으로 돌아가는 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특정 이론적 배경 없이 인구이동에 대한 센서스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센서스 자료는 출생, 5년 전 그리고 현재의 세 시점의 거주지 정보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센서스 자료를 사용할 경우 출생지로 돌아가는 이동만을 귀환이동으로 정의하게 된다.

높은 결과들을 사용하여 연령패턴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이동에 미치는 연령 효과만을 구별하여 파악하기 위해 다른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들의 혼합효과(compounding effects)를 통제하고자 한다. 분석에서 통제변수로 포함될 변수들은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결과들에서 중요한 설명 요인들로 알려져 있는 요인들이다. 이에는 성별, 인종(race/ethnicity), 학력, 혼인상태, 자녀의 수, 거주 기간, 고용상태,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측정간격(1년 혹은 2년) 등이 포함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최초이동의 분석에서, 연령과 거주기간이 사실상 같은 변수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최초이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거주기간의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령 변수와 거주기간 외의 통제변수들은 세 가지 이동형태 분석 모두에서 동일하게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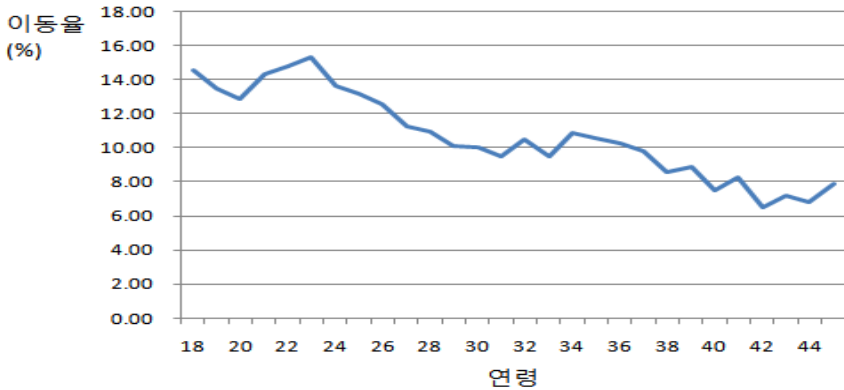
IV. 연구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성

우선 연령 및 다른 사회경제 변수들에 따른 각 집단별 인구이동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구이동률은 각 이동형태별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연령분포와 관련해서 이들이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분석에 사용되는 표집집단이 다소 나이가 낮은 성인 집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혼인상태나 주택보유상태 등은 이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거나 주택을 아직 보유하지 않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은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이동률을 보면 반복이동, 특히 계속이동의 이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초이동의 이동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1>). 이는 인구이동의 대부분은 반복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초이동의 경우는 사례수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이동률 역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분석의 데이터 구조(개인기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최초이동

<그림 1>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이



자료: NLSY79(1976~2004)

은 대부분 성인시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 연구의 주관심 대상인 연령집단별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종류의 인구이동에서 연령이 늘어날수록 인구이동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통계적 분석은 다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들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증가에 따른 감소추세를 연령의 영향이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별 인구이동률을 살펴보면, 세 가지 종류의 인구이동 모두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결과들이 눈에 띈다. 이들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들과 일치한다. 이들 변수들에는 성별, 혼인상태, 고용상태, 주택소유 여부와 거주기간(반복이동의 경우) 등이다.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집단들은 각각 남성, 무배우자, 실업상태, 주택 비소유와 거주기간이 짧은 집단들이다. 그러나 거주기간의 영향력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데, 계속이동의 경우 거주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동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귀환이동의 경우에는 이동률이 2년 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사회경제적 변수들에 따른 이동률의 분포(%)

| | 최초이동 | 계속이동 | 귀환이동 |
|----------|-------------|--------------|--------------|
| 전체 | 1,738 (4.9) | 8,047 (8.9) | 5,405 (6.1) |
| 연령 | | | |
| 18 ~ 24세 | 1,048 (6.8) | 3,041 (12.1) | 1,897 (7.9) |
| 25 ~ 29세 | 344 (3.9) | 2,160 (8.9) | 1,495 (6.4) |
| 30 ~ 34세 | 207 (3.3) | 1,561 (7.2) | 1,150 (5.4) |
| 35 ~ 39세 | 111 (3.3) | 936 (6.9) | 661 (5.0) |
| 40 ~ 44세 | 28 (2.0) | 349 (5.6) | 202 (3.3) |
| 인종 | | | |
| 백인 | 869 (5.7) | 5,089 (10.1) | 3,066 (6.4) |
| 흑인 | 646 (4.6) | 1,710 (7.7) | 1,485 (6.7) |
| 히스패닉 | 223 (3.9) | 1,248 (6.9) | 854 (4.8) |
| 성별 | | | |
| 남성 | 940 (5.2) | 4,400 (9.3) | 3,003 (6.5) |
| 여성 | 798 (4.7) | 3,647 (8.5) | 2,402 (5.7) |
| 혼인상태 | | | |
| 무배우 | 1,229 (5.7) | 4,623 (10.4) | 3,066 (7.2) |
| 유배우 | 509 (3.7) | 3,423 (7.4) | 2,339 (5.2) |
| 교육수준 | | | |
| 고졸미만 | 329 (5.5) | 1,035 (8.0) | 860 (6.7) |
| 고졸 | 1,149 (4.6) | 4,391 (8.2) | 3,341 (6.4) |
| 2년제 대학 | 101 (4.2) | 560 (9.3) | 303 (5.3) |
| 대졸이상 | 142 (8.0) | 1,987 (11.5) | 847 (5.2) |
| 결측 | 17 (5.3) | | |
| 자녀의 수 | | | |
| 1 | 202 (3.5) | 1,154 (7.1) | 3,428 (7.3) |
| 2-3 | 198 (2.6) | 1,354 (5.9) | 890 (5.6) |
| 4+ | 23 (3.2) | 114 (5.0) | 995 (4.4) |
| 0 | 1,315 (6.2) | 5,425 (11.0) | 92 (4.1) |
| 고용상태 | | | |
| 비실업 | 1,464 (4.8) | 7,234 (8.7) | 4,781 (5.9) |
| 실업 | 274 (6.1) | 813 (10.5) | 624 (8.2) |
| 주택보유상태 | | | |
| 비소유 | 1,402 (5.9) | 5,921 (11.3) | 3,962 (7.9) |
| 소유 | 242 (2.9) | 1,450 (5.4) | 955 (3.6) |
| 결측 | 94 (3.1) | 676 (6.0) | 488 (4.4) |
| 거주기간 | | | |
| 0-2 년 | | 2,916 (14.2) | 3,090 (14.9) |
| 3-5 년 | | 2,135 (10.6) | 1,421 (7.3) |
| 6-10 년 | | 1,383 (7.2) | 563 (3.1) |
| 11년 이상 | | 1,598 (5.2) | 331 (1.1) |
| 결측 | | 15 (5.1) | 1 (0.0) |
| 측정간격 | | | |
| 1년 | 1,560 (5.2) | 6,599 (9.4) | 4,470 (6.6) |
| 2년 | 178 (3.5) | 1,448 (7.0) | 935 (4.7) |

자료: NLSY79(1976~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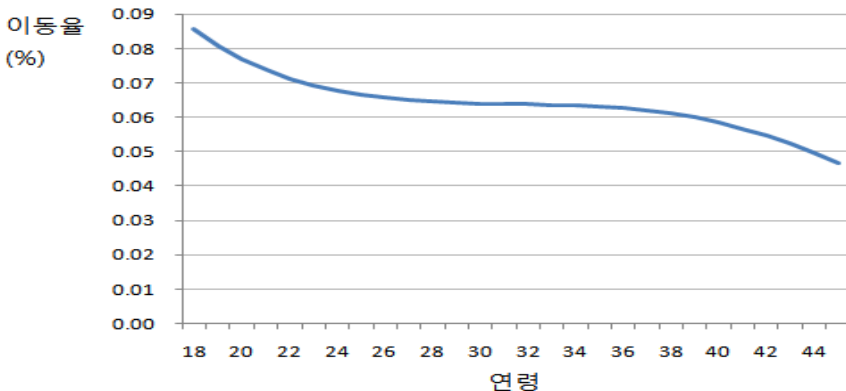
반대로 인구이동의 종류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도 나타난다. 흥미로운 사실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동들, 즉 최초이동과 계속이동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이동력 차이의 경향은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귀환이동에서 몇몇 변수들은 다른 인구이동들과는 다른 특이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귀환이동에서는 흑인이 히스패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백인들보다도 높은 이동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다른 이동들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동률이 높게 나타나지만, 귀환이동에서는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이동률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회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인구이동에 있어서도 실패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귀환이동에서 이전 이동이 실패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연령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고,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연령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인구이동의 연령추이

인구이동 형태별 연령패턴을 알아보기에 앞서, 인구이동의 전통적 방식처럼 이동 형태의 구분 없이 전체 인구이동률의 연령추이를 살펴보았다. 전체 인구이동의 경우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삼차함수($n = ax^3+bx^2+cx+d$; x = 연령) 형태의 로그식이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을 확률분포로

<그림 2>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이(전체이동)



자료: NLSY79(1976~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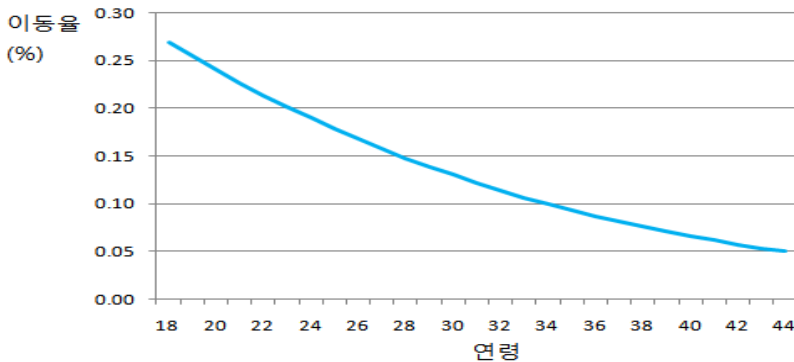
나타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동률은 떨어지지만 이십대 후반과 삼십대 후반 사이의 구간에서는 그 감소율이 완화되어 나타난다(〈그림 2〉).

전체 인구이동의 연령패턴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이전의 인구이동률의 연령추이, 즉 인구이동률이 성인연령 초기에 급증하고 이십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한 후, 이후 꾸준히 내려가는 패턴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생애주기 및 지역애착 등을 포함한 다른 사회경제적 그리고 인구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이십대 초반에 나타나던 인구이동률의 급증 현상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모든 종류의 인구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최초이동에서 인구이동률의 연령추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하고, 이를 연령에 따른 확률분포로 나타내었다(〈그림 3〉). 연령증가에 따라 성인초기 연령부터 이동률은 급감하여 중년에 이르러서는 일반 이동률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초기의 높은 이동률을 감안하면 연령 증가에 따른 이동률의 감소는 매우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통계 결과에서 최초이동과 유사한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었던 계속 이동은 이동률의 연령추이에서 최초이동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부적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그 세부적 패턴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4〉). 연령증가에 따른 이동확률의 분포는 각 연령 구간들에서 별다른 변화 없이 거의 선형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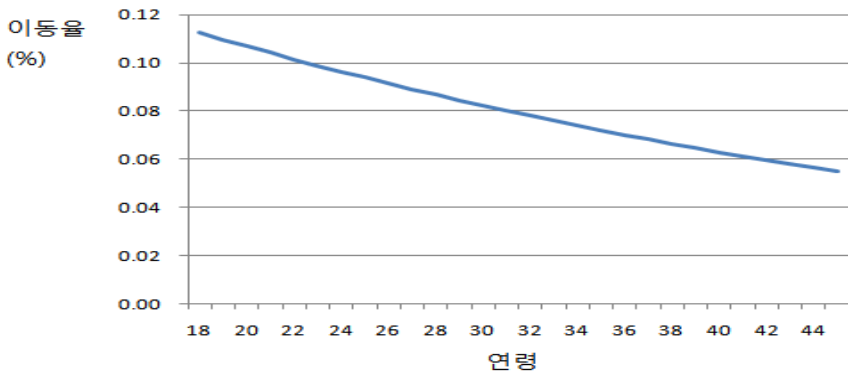
〈그림 3〉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이(최초이동)



자료: NLSY79(1976~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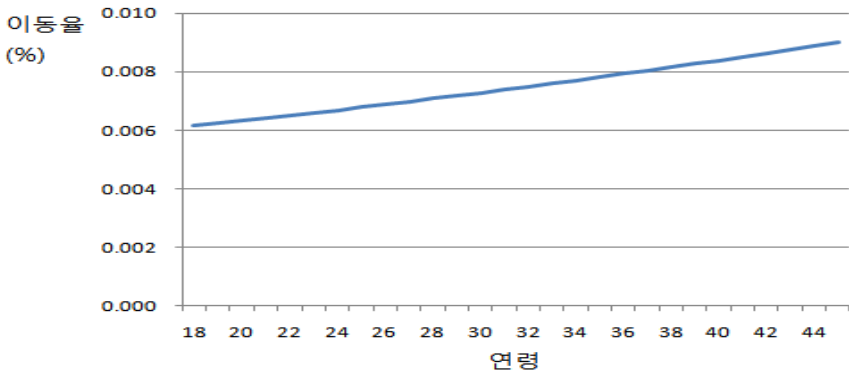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귀환이동의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인구이동과는 달리 오히려 인구이동률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비록 그 상승세의 기울기는 매우 완만하였으며, 확률로 변환된 다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이후 연령만이 미치는 영향력 역시 계속이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낮은 확률값들은 상수값의 크기에 기인한다.

<그림 4>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이(계속이동)



자료: NLSY79(1976~2004)

<그림 5> 연령에 따른 인구이동률의 변화 추이(귀환이동)



자료: NLSY79(1976~2004)

3.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마지막으로 연령 이외의 다른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인구이동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비록 최초이동과 반복이동 분석에서의 모델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나타낸 <표 2>를 살펴

<표 2> 반복이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 최초이동 | 계속이동 | 귀환이동 |
|---------------|-------------------|-------------------|-------------------|
| | b (s.e.) | b (s.e.) | b (s.e.) |
| 상수 | 0.348 (0.548) | -1.544 (0.136)*** | -5.343 (0.171)*** |
| 인종 (백인) | | | |
| 히스패닉 | -0.386 (0.078)*** | -0.318 (0.034)*** | -0.196 (0.042)*** |
| 흑인 | -0.197 (0.057)*** | -0.333 (0.031)*** | -0.041 (0.035) |
| 성별 (여성) | | | |
| 남 | 0.021 (0.052) | 0.067 (0.024)*** | 0.075 (0.030)** |
| 취업상태 (실업) | | | |
| 비실업 | -0.112 (0.072) | -0.116 (0.041)*** | -0.143 (0.048)*** |
| 주택소유 (소유) | | | |
| 결측 | 0.172 (0.130) | 0.144 (0.050)*** | 0.053 (0.060) |
| 비소유 | 0.471 (0.084)*** | 0.715 (0.035)*** | 0.545 (0.043)*** |
| 혼인상태 (무배우) | | | |
| 유배우 | -0.145 (0.069)** | -0.027 (0.030) | 0.060 (0.036) |
| 교육 (대졸이상) | | | |
| 결측 | -0.694 (0.268)*** | --- | --- |
| 고졸미만 | -0.702 (0.113)*** | -0.428 (0.044)*** | 0.482 (0.055)*** |
| 고졸 | -0.767 (0.097)*** | -0.341 (0.031)*** | 0.414 (0.042)*** |
| 2년제 대학 | -0.646 (0.136)*** | -0.113 (0.052)** | 0.218 (0.071)*** |
| 자녀 수 (자녀 없음) | | | |
| 1명 | -0.399 (0.085)*** | -0.187 (0.038)*** | -0.032 (0.044) |
| 2-3명 | -0.487 (0.093)*** | -0.223 (0.039)*** | -0.119 (0.046)*** |
| 4명 이상 | -0.207 (0.222) | -0.305 (0.101)*** | -0.133 (0.115) |
| 거주기간 (10년 이상) | | | |
| 결측 | --- | -0.104 (0.268)*** | -16.767 (2404.1) |
| 0~2 | --- | 0.870 (0.034)*** | 2.739 (0.060)*** |
| 3~5 | --- | 0.665 (0.035)*** | 1.987 (0.063)*** |
| 6~10 | --- | 0.309 (0.039)*** | 1.068 (0.071)*** |
| 측정간격 (2년 단위) | | | |
| 1년단위 | -0.755 (0.148)*** | -0.442 (0.046)*** | -0.157 (0.055)** |
| 연령 | | | |
| | -0.075 (0.044)*** | -0.029 (0.003)*** | 0.014 (0.004)*** |
| 표본수 | 35,170 | 90,651 | 88,009 |

주: *p<0.10, **p<0.05, ***p<0.01

자료: NLSY79(1976~2004)

보면, 앞서 기술통계 분석에서의 발견들이 상당부분 일관되게 나타났다.

최초이동과 계속이동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귀환이동의 경우에는 몇 가지 두드러지는 차이들이 발견되었다. 우선은 인종간의 차이가 상당 부분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 점과 학력이 낮을수록 귀환이동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변수가 사회적 기회(opportunity)의 분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패한 이동의 특성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특징은 생애과정을 반영하는 자녀의 수나 연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뚜렷하지 않거나 다른 이동형태에 비해 작다는 점이다.

V. 결론

인구이동의 연령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이동형태에 따라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이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각의 함의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인구이동 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이러한 인구이동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생애주기와 지역애착의 영향력 외에도 연령 자체가 특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 방식으로 과거 이동력을 무시한 채 전체적인 인구이동만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이십대 초중반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이동률의 급격한 증가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 초기의 높은 이동력이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요소들과 지역애착의 요인들에 강하게 영향 받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형태의 인구이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생애 최초이동이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연령패턴의 특성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이동률의 저하 폭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이 인구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들이 일생동안 단 한 번의 인구이동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다른 인구이동의 경험집단에 비해 지역애착이 급격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인구이동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반대로 인구이동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의 부재가 이들을 기존의 살던 지역에 강력하게 묶어두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초기 성인기를 넘어서까지 같은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집단들은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볼 때 이동력(mobility)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속이동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최초이동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며, 실제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에서도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동을 경험한 이들은 어느 정도의 연령에 이른 후에도 상당한 이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인구이동 경험이 일정 연령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구이동을 촉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혹은 이동력이 높은 집단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이동의 분석을 보면 연령의 증가는 최초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속이동에서도 이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이동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애착 설명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주기간의 효과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최초이동의 분석에서와는 달리 연령의 효과만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애과정과 지역애착의 영향을 제외한 순수한 연령효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심리적 보수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기서 이동에 대한 심리적 보수성이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피하려는 태도와 이주의 실패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함께 포함한다. 생애과정과 지역애착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계속이동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이동률이 일정한 기울기로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이동에 대한 심리적 보수성이 일관되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최초이동 분석에서 나타난 이동률의 급감현상도 지역애착의 영향력의 급증과 더불어 심리적 보수성의 효과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귀환이동의 분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와 지역애착의 영향으로 은퇴시기 이전의 성인연령층에서는 인구이동이 점차 감소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연령을 따라 그 이동률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령패턴을 많은 이전의 귀환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한 실패한 이동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실패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Newbold 2001; Newbold and Bell 2001)과 실패의 가능

성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변수들(예를 들어, 인종, 학력 및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의 효과가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귀환이동에서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증가는 두 가지 심리적 접근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최초이동과 계속이동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보수성 증가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여기서 심리적 보수성은 앞서 다른 형태의 이동들에서처럼 이동의 기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목적지에 대한 선택의 보수성을 뜻한다. 과거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이주 이후 정착에 필요한 심리적, 경험적 비용을 줄이고, 실패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을 기피하고 새로운 지역 적응의 실패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고 볼 때, 귀환이동은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심리적 경향이 귀환이동률의 증가로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연령에 따른 귀환이동률의 증가는 과거 거주하였던 지역에 대한 지역 애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역애착에 대한 접근은 현재 거주지에 대한 애착에만 주목하였지만, 인구이동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이나 Wilson et al.(2009)의 연구에서 주장하듯이, 지역이 갖는 주관적 의미가 이동 후에도 계속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지역애착의 개념을 과거의 지역에까지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 거주 지역에 대한 심리적 지역애착 혹은 그리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예전에 살았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귀환이동이 늘어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구이동을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그 연령패턴이 기존의 설명들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요약 및 토론

1. 요약 및 함의

이 연구는 인구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중 하나인 연령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즉 인구이동의 연령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단순한 전체 수준에서 거주지의 변화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 이동 경험 유무와 이동의 목적지에 따라 생애 최초이동과

반복이동으로 구분하였으며, 반복이동은 다시 계속이동과 귀환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다양한 형태의 인구이동들이 갖는 연령패턴을 장기간에 걸쳐 개인들의 인구이동의 정보를 축적한 패널 데이터(NLSY79)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많은 인구이동 연구들은 인구이동의 다양성에 주목하였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가 제한되어왔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애과정과 지역애착과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연령이 갖는 특성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비록 귀환이동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차이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최초이동과, 계속이동과 귀환이동을 포함한 반복이동 모두에서 연령의 효과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분석결과는 인구이동에 대한 연령효과가 남아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동형태에 따라 연령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발견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성인부터 초기 중년에 이르는 연령대(18~45세)에서 전체이동의 경우 그 이동률이 다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서서히 내려가는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변화를 각 이동형태별로 구분해보면, 각각의 연령추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생애 최초이동의 경우에는 성인초기의 높은 수준에서 급감하여 감소의 폭이 가장 컸으며, 계속이동의 경우에는 선형 패턴으로 일관되게 하강하는 경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환이동에서는 반대로 선형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각 형태별 인구이동이 보여주는 연령추이의 차이들은 각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맥락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것은 인구이동을 형태별로 구분한 기존의 인구이동들이 보여주었던 인구이동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인구이동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인구이동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지지하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증적 발견들은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에 있어서도 새로운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인구이동에 미치는 연령의 영향력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심리적 차원의 접근을 제한하였는데, 인구이동 결정 및 목적 지역의 선택에 있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안정된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는 가설로 분석결과들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지역애착 개념과 관련해서도 현재 거주지에 한정된 설명을 넘어 과거 거주지에 대한 심리적 애착(그리

움)으로까지 지역 애착의 개념을 확장할 수도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확장된 개념의 지역애착과 심리적 차원에 대한 주목은 인구이동 현상의 설명에서 민족학적으로 접근하는 최근의 새로운 경향과도 일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도 새로운 제안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인구이동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장기간의 이동 경험이 누적된 종단적 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자료의 수집 및 인구이동의 측정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심리적 차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도 더 많은 개념적 발전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들을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분석 모델 설정에 있어서 이 연구는 개인기간(person-period)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관찰값들이 상호 독립성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개인기간의 관찰값들이 개인들에게 내재(nested)되어 있고, 이것이 정확한 분석을 방해할 위험성을 이 연구에서는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확장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 등을 사용하여 관찰치들의 내적 연관성(intra-correlation)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강상진, 2005). 그러나 최초이동에 관한 분석에서 개인에게 내재되는 내적 연관성, 다시 말해 이동의 성향은 연령과 강하게 상관성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방식을 곧바로 이 연구의 분석 모델에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분석들 간의 형식상 통일성을 위해 단순 이항분석을 사용하였지만, 더 발전된 분석 방법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형태적으로 세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의 내용적 특성과 관련해서도 실패한 이동(failed migration)과 계획된 이동(pre-planned migration)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인구이동, 특히 귀환이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이동이 실패한 이동이고 어떠한 경우가 계획된 이동이었는지 그리고 연령추이에 따라 어떻게 그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실패한 이동과 계획된 이동은 귀환이동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전의 이동이 실패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꼭 과거 거주지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실패를 만회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되돌아

을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동 없이 계속 같은 지역에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는 이러한 복잡한 사례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인구이동의 형식과 사례에만 주목하고 이동의 목적 및 이유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패한 이동이나 계획된 이동과 같은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이동의 형태와 내용은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며, 또한 인구이동의 내용에 대한 주목 역시 인구이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주관적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고,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정태적 특성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새로운 발견들의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데이터는 기존의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들이 직면하였던 방법론적 한계들을 상당부분 경감시켜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출생 코호트들에 한정된 패널데이터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대적 경험이 다른 코호트들도 마찬가지로의 패턴을 보일 것인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간(period) 효과가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 경기변동과 같은 연도별로 나타나는 특성들과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자료가 보여주듯이 점차 인구이동률이 감소되고 있는 경향(U.S. Census Bureau, 2009)⁶⁾이 패널 데이터의 특성상 구별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코호트들을 대상으로 인구이동력(移動歷)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양질의 자료들이 추가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반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발견들이 과연 국내 인구이동 현상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생애과정이 다르고 가족구조나 분가형태가 상이하며, 집값이나 전세값 문제, 신도시 개발, 지역격차 그리고 농촌문제 등과 같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인구이동은 외국과는 다른 독특한 패턴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영토의 넓이가 미국에 비해 매우 좁은 반면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인구이동 특히 반복이동에서는 귀환이동이 갖는 차별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것이며, 노부모 부양이나(부부 모두의) 조부모와의 자녀 양육노동 분담 등

6) 미국 인구이동률의 일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귀환이동률이 늘어난다는 이 연구의 발견은 많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목적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론한다.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많은 특수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구학 연구에서 인구이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인구이동을 위한 자료들의 축적 역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를 통해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바는 우리사회의 독특한 특성만큼이나 우리사회의 인구이동 연구에는 아직도 주목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가 기존의 인구이동 연구들이 자료적 한계로 인해 보여주지 못했던 발견들을 보여주면서 인구이동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듯이, 한국적 인구이동 모델 및 이론의 개발은 우리사회의 인구현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여 줄 것이다.

그리고 분석 방법론과 관련하여 인구이동 자료의 축적 및 패널 데이터의 증가 등은 국내 인구이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연구주제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패널 데이터에 대한 분석방법의 개발이나 지리적 특성을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GIS 기법의 적용 등 방법론에서도 다양한 과제들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한 새로운 발견들의 축적은 인구이동 현상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대한 더 수준 높은 이해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강상진 (2005) “다층모형분석”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원리와 실제》 이재열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63.
- 김두섭·권태환 (2002) “인구이동”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67-204.
- Bohara, A. K. and R. G. Krieg (1996) “A Zero-inflated Poisson Model of Migration Frequency”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19: 211-22.
- DaVanzo, J. S. (1983) “Repeat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Who Moves Back and Who Moves 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4): 552-559.
- DaVanzo, J. S. and P. A. Morrison (1981) “Return and Other Sequences of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8(1): 85-101
- Détang-Dessendre, C., Pigué V. and B. Schmitt (2002) “Life Cycle Variability in the Microeconomic Determinants of Urban-Rural Migration” *Population* (English edition) 57(1): 31-56.

- Eldridge, H. T. (1965) "Primary, Secondary, and Return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1955-60" *Demography* 2: 444-455.
- Goldstein, S. (1954) "Repeated Migration as a Factor in High Mobility R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5): 536-541.
- _____ (1964) "The Extent of Repeated Migration: An Analysis Based on the Danish Population Register"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9(308): 1121-1132.
- Hogan, D. P. and E. M. Kitagawa (1985) "The Impact of Social Status, Family Structure, and Neighborhood on the Fertility of Black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4): 825-855.
- Howell, F. M. and W. Frese (1983) "Size of Place, Residential Preferences and the Life Cyc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4): 569-580.
- Hunt, J. (2004) "Are Migrants More Skilled than Non-Migrants? Repeat, Return, and Same-Employer Migrant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7(4): 830-849.
- Jones, H. (1990) *Population Geography*. London: Paul Chapman.
- Lee, A. S. (1974) "Return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Return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8(2): 283-300.
- Lee, E.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47-57.
- Lee, S. W. and C. C. Roseman (1999) "Migration Determinants and Employment Consequences of White and Black Families, 1985-1990" *Economic Geography* 75(2): 109-33.
- Liaw, K. L. (1990) "Joint Effect of Personal Factors and Ecological Variables on the Interprovincial Migration Pattern of Young Adults in Canada" *Geographical Analysis* 22: 189-208.
- Long, J. F. and C. G. Boertlein (1990) "Comparing Migration Measures Having Different Interval" pp. 1-11 in *Perspectives in Migration Analysis*. Current Population Reports, Special Studies Series P-23 No.166.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 Long, L. H. (1973) "Migration Differentials by Education and Occupation: Trends and Variations" *Demography* 10(2): 243-258.
- Massey, D. S. (1996) "Politicising Space and Place" *Scottish Geographical Magazine* 112(2): 117-123.

- McHugh, K. E. (2000) "Inside, Outside, Upside Down, Backward, Forward, Round and Round: A Case for Ethnographic Studies in Mig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1): 71-89.
- Miller, A. R. (1977) "Interstate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Some Social-Economic Differences by Type of Move" *Demography* 14(1): 1-17.
- Newbold, K. B. (1997) "Race and Primary, Return and Onward Interstate Migration" *Professional Geographer* 49(1): 1-14.
- _____ (2001) "Counting Migrants and Migrations: Comparing Lifetime and Fixed-Interval Return and Onward Migration" *Economic Geography* 77(1): 23-40.
- Newbold, K. B. and M. Bell (2001) "Return and Onwards Migration in Canada and Australia: Evidence from Fixed Interval Dat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5(4): 1157-1184.
- Pandit, K. (1997) "Cohort and Period Effects in U.S. Migration: How Demographic and Economic Cycles Influence the Migration Schedul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7(3): 439-450.
- Rogers, A. (1979) "Migration Patterns and Population Redistributio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9: 275-310.
- Sandefur, G. D. and W. J. Scott (1981) "A Dynamic Analysis of Migration: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Age, Family and Career" *Demography* 18(3): 355-368.
- Schoumaker, B. and S. R. Hayford (2004) "A Person-Period Approach to Analyzing Birth Histories" *Population* (English edition) 59(5): 689-701.
- Shyrock, H. S., Jr. (1964) *Population Mobility within the United Stat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Community and Family Study Center.
- Shyrock, H. S., Jr. and E. A. Larmon (1965) "Some Longitudinal Data on Internal Migration" *Demography* 2: 579-592.
- Smith, J. S. (2002) "Rural Place Attachment in Hispano Urban Center" *The Geographical Review* (92): 432-451.
- Thomas, D. (1938) *Research Memorandum on Migration Differentials*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Uhlenberg, P. (1973) "Noneconomic Determinants of Nonmigration: Sociological Considerations for Migration Theory" *Rural Sociology* 38(3): 296-311.

- White, M. J. and D. P. Lindstrom (2006) "Internal Migration" pp. 311-346 in *Handbook of Population*, edited by D. L. Poston and M. Micklin, New York: Springer Publisher.
- Wilson, B. A., Berry, E. H., Toney, M. B., Kim Y. T. and J. B. Cromartie (2009) "A Panel Based Analysis of the Effects of Race/Ethnicity and Other Individual Level Characteristics at Leaving on Returning"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8(4): 405-28.
- Xu-Doeve, W. L. J. (2007) "The Basic Principles of the measurement of Migration Using Population Censu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U.S. 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migrate.html>
[2009. 8. 26 접수 | 2009. 10. 6 심사(수정) | 2009. 11. 18 채택]